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58
FEB 5 2021

발간년월 2021년 2월 5일 (통권 제158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 미국의 제재에도 노드스트림2 건설 작업 재개
- 러시아, 항만 인프라 현대화·확장사업 지속적 추진
-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 터미널에 냉동 창고 건설
-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식료품 적정가격 책정 필요
- 우즈벡 지자크 오가닉 클러스터, 농업에 드론 투입
- 독립국가연합, 영상 회의로 다자간 협력 방안 논의

주요 통계

- 2020년 1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1~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주요 동향



러, 미국의 제재에도 노드스트림 2 건설작업 재개

■ 러시아 부총리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Nord Stream) 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a)}

- 노박 부총리는 유럽 국가들과 기업들이 노드스트림 2 건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재를 무기로 자유시장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파이프라인 건설을 재개하였다고 밝혔음
- 노드스트림 2는 러시아의 비보르크(Vyborg)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의 자이니츠(Sassnitz)를 연결하는 1,222km의 해상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총 가스 수송 가능량은 550억m³에 달함
- 이 건설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과 글로벌 석유 기업인 로얄더치셸(Royal Dutch Shell), 독일 전력 기업인 E.ON, 국제 석유 가스 기업인 OMV, 프랑스 전력 기업인 엔지(Engie) 등임

■ 파이프라인 건설을 재개하자 미국 정부는 노드스트림 2 건설에 참여한 포르투나(Fortuna) 호와 해당 선박을 소유한 KVT-RUS에 제재 조치^{a)}

-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막바지에 내려졌는데, 미 국무부는 신규 제재안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조 바이든 행정부도 노드스트림 2 건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이 파이프 라인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현재의 제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파이프라인 완공을 위해 미국 정부의 제재 강화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음

그림. 노드스트림 2(Nord Stream 2) 프로젝트 건설 구역



자료: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nordstream-sanctions-idUSKBN2901XL>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러시아, 항만 인프라 현대화·확장 사업 지속 추진

■ 러시아는 ‘러시아 항만’ 연방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지역에 항만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재개발하는 등 항만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 중^{a)}

- 이 같은 계획은 러시아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현대화·확장 종합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 세부 사업은 아래와 같음

■ 로스모르포트(Rosmorport)는 북극 지역에 있는 페벡(Pevék) 항만의 처리 능력을 지금보다 80만 톤 더 늘리는 1, 2번 선석 재개발 사업을 진행

- 이 사업이 완공되면 북극 지역에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 쉬워지고, 특히 추코트카주 교외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 항만’ 연방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극동 지역 항만의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3건의 인프라 확장 사업이 진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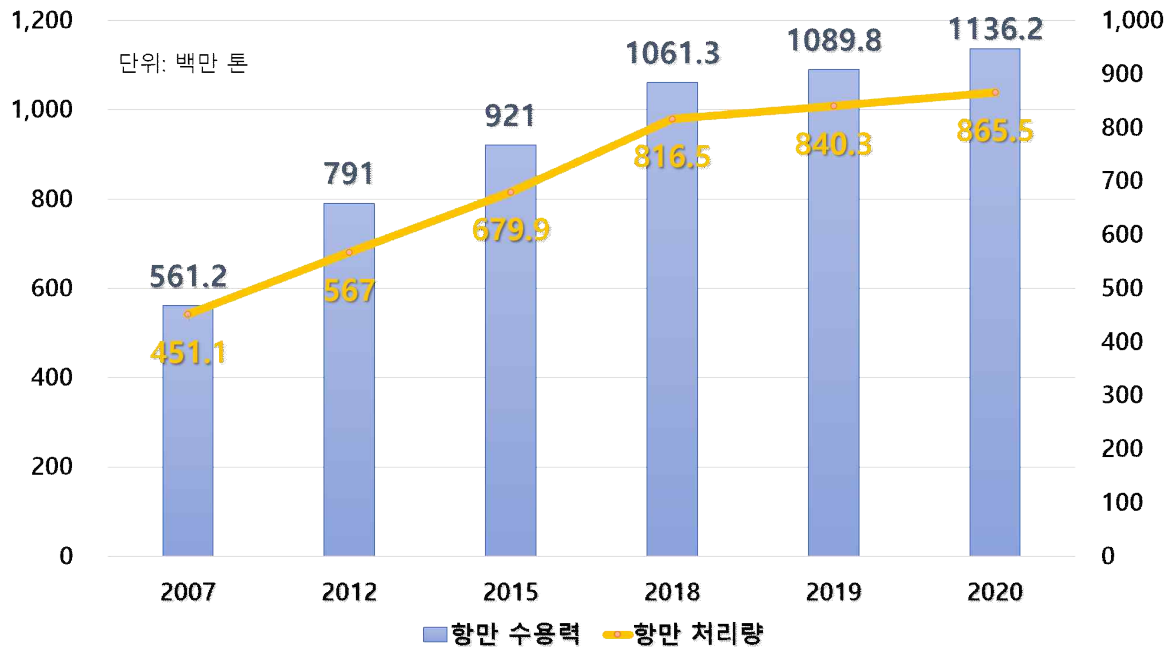
- 우선 연해주의 오크르티(Otkrytyi) 구역(2A단계)에 석탄 전용 환적단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사업으로 항만의 처리능력은 기존보다 155만 톤 증가할 것임
- 또한 600만 톤(1단계)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항만을 수호돌(Sukhodol) 만에 신설할 계획임. ‘로스모르포트’는 이 같은 항만 건설작업을 사용할 시설과 항해 장비 등을 이미 발주했음
- 그 밖에도 보스토치니 항만의 34, 35번 선석의 수압구조물 및 접근 도로의 재건사업을 완료할 계획임. 이에 따라 보스토치니 항만의 처리능력이 50만 톤 증가하게 되고, «Malyi Port» 터미널에서 처리되는 석탄량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 로스모르포트는 해당 사업을 통해 극동지역의 수출 잠재력이 증대되는 한편 아·태지역으로 수출되는 석탄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발트해·아조프-흑해 지역의 물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항만 인프라 개선사업도 동시에 추진

- 발트해의 우스트 루가 항만에는 1,200만 톤의 광물 비료를 처리할 수 있는 울트라마르(Ultramar) 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임

- 또한 아조프-흑해 연안에 있는 타만 항만의 벌크 터미널 처리능력을 2,500만 톤 제고하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이 밖에도 아조프-흑해 지역의 노보로스시스크 항만에 있는 "KSK"의 곡물 터미널의 처리능력을 150만 톤 증가시키는 재개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임

그림. 러시아 항만 수용력 및 처리량 비교표



자료: http://old.morflot.ru/deyatelnost/napravleniya_deyatelnosti/portyi_rf.html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moschnost_rossiyskih_morskih_portov_v_2021_godu_planiruetsya_uvelichit_na_50 mln_tonn_v_ramkah_kpmi.html (2021.2.1. 검색)
- http://old.morflot.ru/deyatelnost/napravleniya_deyatelnosti/portyi_rf.html (2021.2.1. 검색)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 터미널에 냉동창고 건설

■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 터미널에 냉동·냉장시설을 새로 짓고, 현대 화해 항만의 화물 처리율을 높인다는 방침임

- 연해주(Primorsky Krai) 주 정부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수산청(Primorye Fisheries Agency) 자료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 터미널은 최대 3만 8000톤의 수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냉동·냉장 수산물 저장 인프라를 건설하고, 현대화시킬 계획임
- 건설사업이 종료되면, 이 터미널에서는 연간 최대 50만 톤의 물동량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억 8천700만 루블(약 512만 달러)이며, 49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 터미널에 최대 6000톤 규모의 냉동·냉장창고를 건설하는 1단계 작업이 시작되었음

■ 냉동·냉장시설의 저장용량 확대는 어류 및 해산물 가격을 인하해 지역 주민들의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이점이 있음

- 제14차 블라디보스토크 국제 어업인 회의(International fishery congress)에서 올렉 코제마코(Oleg Kozhemyako) 연해주 주지사는 지역 주민을 위한 수산물 가격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올렉 코제마코 주지사는 수산물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냉동·냉장시설의 저장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한편, 지난해 디오미도프스키 어항(Diomidovskiy rybnyy port)은 6000톤 규모의 냉동·냉장 처리 단지를 건설함
- 이 프로젝트에는 약 2억 700만 루블(약 274만 달러)이 투자되었으며, 5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

그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 터미널 냉동냉장창고



자료: <http://amg-group.ru/content/vladivostokskiy-rybnyy-terminal-holodilnik-no1-g-vladivostok-ul-berezovaya-d-25>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vladivostokskiy-rybnyy-terminal-moderniziruet_i_stroit_holodilniki_moschnostyu_okolo_40_tysyach_tonn.html(2021.2.3. 검색)
- https://www.primorsky.ru/news/232862/?utm_referrer=korabel.ru%2Fnews%2Fcomments%2Fvladivostokskiy-rybnyy-terminal-moderniziruet_i_stroit_holodilniki_moschnostyu_okolo_40_tysyach_tonn.html(2021.2.3. 검색)
- <http://amg-group.ru/content/vladivostokskiy-rybnyy-terminal-holodilnik-no1-g-vladivostok-ul-berezovaya-d-25>(2021.2.3. 검색)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식료품 적정가격 책정 필요

■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식료품 가격은 높은 운송비용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a)}

-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높은 식료품 가격은 운송비용과 연관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러시아 평균 1인당 최소 식료품 구입비용이 4,363 루블이면 한티만시 자치구는 5,284 루블, 추코트카 자치구는 10,992 루블로 2배 이상 높게 가격이 책정됨.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극동지역 14곳의 해산물 최저 가격은 러시아 평균보다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0년 12월 산업통상부는 여러 지역의 상이한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음. 빅토르 예브투호프(Viktor Yevtukhov) 국무장관 겸 산업통상부 차관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위해서는 높은 물류 운송비용을 적정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특정 지역에서 식료품 가격이 높은 것에 비해 1인당 가구소득은 낮게 나타났음. 네네츠 자치구는 가구당 최소로 필요한 식료품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23.9% 높으나 1인당 가구소득은 5% 낮고, 연해 변경지역은 평균보다 가구소득이 1% 높으나 식료품 가격은 34.2% 높게 나타났음

■ 높은 물류 운송비용은 식료품 가격의 인상을 초래

- 국내 생산품이 아닌 주로 수출품에 높은 물류 운송비용이 부과됨. 예를 들어 극동 연방관구에서 바나나 가격은 러시아 평균보다 51.1%를 초과함
- 농식품 가격이 러시아 평균 가격보다 높은 지역은 주로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농식품 생산지역임. 반면에 농업과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앙 연방관구에 속한 지역은 러시아 평균 가격보다 식료품 가격이 낮음. 예를 들어 보르네시 주와 쿠르스크카 주는 식료품 최저가격이 러시아 평균 가격에 비해 16.6% 낮고, 사라토프(15.7%), 타타르스탄 (13.9%), 볼고그라드(12.8%)도 식료품 가격이 낮게 나타남
- 특정 지역의 높은 운송비용은 물류 인프라 부족에 원인이 있음.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물류개발수준 국가 순위에서 75위를 차지함. 방대한 영토에 맞지 않는 물류 시스템과 원자재 및 상품의 높은 운송비용이 모두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물류 운송비용을 줄여야 함. 그러나 러시아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21~2022년에 책정된 연방 고속도로 회랑 건설과 재건설 계획은 늘어났으나 지역 간선도로 건설계획은 2~10배 정도 적게 책정되었음
- 결과적으로 현재 약 45%의 지역 도로 회랑 건설이 규제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2024년까지 현재 지역 물류 인프라의 51%만 개선될 것임. 물류운송 인프라 발전의 핵심 요소는 화물 운송 및 물류 센터에 대한 세금 부과를 낮추는 것임

이하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asunlee@hotmail.com)

우즈벡 지자크 오가닉 클러스터, 농업에 드론 투입

■ 지자크 오가닉(Jizzax Organic) 클러스터, 농업 분야에 최초로 드론 도입

- 2020년 10월 샵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화상 회의를 통해 무인항공기를 사용해 토지를 관리하고 농작물을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발표함
- 2021년 2월 2일 우즈베키스탄 민간항공국은 지자크 오가닉 클러스터에 무인항공기 드론 이용을 허가함
- 또한 지자크 오가닉 클러스터는 올해 추가로 비료 살포용 대형 드론을 인수할 예정임
- 한편 이번에 도입한 드론은 중국 팍스테크(FOXTECH)의 Great Shark 330VTOL 모델로 최대 2시간 3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함

■ 드론은 주로 식물의 성장과 발달 과정 확인 모니터링 및 해충 제거에 이용

- 지자크 오가닉 클러스터는 식물의 성장과 발달 과정 확인 모니터링, 해충 제거를 위해 드론을 이용할 계획임
- 이크마틸라 카리모프(Hikmatilla Karimov) 지자크 오가닉 이사는 드론을 통해 농작물의 손상 등에 대한 신속한 최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해충 퇴치, 발병 등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그림. 우즈베키스탄 도입 드론



자료: <http://www.uzdaily.uz/ru/post/58787>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독립국가연합, 영상회의로 다자간 협력 방안 논의

■ 최근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국가 간 다자 협력방안이 영상회의를 통해 논의되었음

- 2월 4일에 열린 이 행사에는 CIS 회원국 외교 기관들과 CIS 집행위원회가 참석해 다자간 협력 현황과 협력 발전을 위한 전망 및 각국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 교환됨
- 또한 2020년 이루어졌던 각 부처 간 단계별 협의 이행 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 이외에도 CIS 회원국 간 외교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었음

그림. 독립국가연합 국가들



자료: <https://cis.minsk.by/news/11062/novuu-redakciu-koncepcii-razvitia-sng-predstavat-na-sammite-v-ashabade>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www.uzdaily.uz/ru/post/58805>(2021.2.3. 검색)
- b) <https://cis.minsk.by/news/11062/novuu-redakciu-koncepcii-razvitia-sng-predstavat-na-sammite-v-ashabade>(2021.2.3. 검색)



주요 통계



표. 2020년 1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1.94(+8,2%)	6.31 (-1,6%)	18.25	+4,6%
북극해	2.62(-4,9%)	5.2(-10,3%)	7.82	-8,6%
발트해	10.05(+0,5%)	9.61(-12,0%)	19.66	-6,6%
아조프-흑해	11.0(+17,3%)	11.55(-12,8%)	21.24	-1,7%
카스피해	0.22 (+27,3%)	0.36(+3,2%)	0.58	+12,2%
합계	35.83 (+7,3%)	33.03(-10,1%)	68.92	-2,3%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06082/>(2021.1.21. 검색)

b) <https://portnews.ru/news/298567/>(2021.1.21. 검색)

표. 2020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9/2020 증가율
극동지역	12.34 (+8,5%)	6.38 (-2,3%)	18.72	+4,6%
북극해	2.46(-4,9%)	5.76 (-9,9 %)	8.22	-8,4%
발트해	10.93 (+2,4%)	10.33 (-12,0%)	21.26	-5,8%
아조프-흑해	9.61 (+16,1%)	11.63 (-13,4%)	21.24	-2,4%
카스피해	0.23 (+21,2%)	0.4(+2,5%)	0.63	+9,5%
합계	35.57 (+7,6%)	34.5(-10,4%)	70.07	-2.3%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흘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테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 https://www.korabel.ru/news/comments/gruzooborot_morskih_portov_rossii_za_11_mesyacev_2020_goda_sokratilsya_na_2_3.html (2021.1.21. 검색)
- <https://www.rusagrotrans.ru/press/novosti-otrasli/gruzooborot-morskikh-portov-rossii-za-12-mesyatsev-2020-goda/> (2021.1.21. 검색)

표. 2020년 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85,173.0	51,385.5	3,942.8	1,806.8	389,115.8	53,192.3
광물 제품	1,284,659. ₁	22,438.3	61,835.0	89,285.3	1,346,494. ₂	111,723.6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123,444. ₂	21,645.9	29.9	1.6	1,123,474. ₁	21,647.5
생고무 및 화학 제품	2,745.3	53,734.5	1,083.1	1,039.3	3,828.4	54,773.8
가죽원료. 모피 제품	2.9	1,700.0	5.6	2.9	8.5	1,703.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65,063.7	5,808.2	357.2	172.7	65,420.9	5,980.9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447.6	26,761.9	122.6	393.2	570.2	27,155.2
금속 및 금속 제품	19,980.6	39,973.2	393.0	3,733.8	20,373.6	43,707.0
기계류	89,594.8	440,674.4	1,123.3	3,805.3	90,718.0	444,479.7
기타	355,165.2	32,772.3	55,963.2	409.1	411,128.4	33,181.4
합계	3,326,276. ₄	696,894.1	124,855.7	100,650.0	3,451,132. ₁	797,544.3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y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1.15. 검색)

표. 2020년 1~11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누계)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622,027. ₃	668,622.1	11,599.9	9,853.0	3,633,627. ₂	678,475.1
광물 제품	13,020,291. ₇	176,340.7	277,660.5	382,818.2	13,297,952. ₃	559,158.9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1,638,243. ₃	163,272.5	1,164.6	6.1	11,639,407. ₉	163,278.6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9,344.4	639,098.5	6,325.6	5,134.3	55,670.0	644,232.8
가죽원료, 모피 제품	810.9	15,590.2	19.0	178.9	829.9	15,769.2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56,251.3	74,004.5	4,723.2	886.2	860,974.5	74,890.7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2,387.9	403,732.4	726.9	3,844.5	13,114.8	407,576.9
금속 및 금속 제품	305,291.4	527,989.6	1,871.6	12,248.8	307,163.0	540,238.4
기계류	556,714.3	3,852,189.1	7,825.1	19,689.1	564,539.3	3,871,878. ₂
기타	2,504,810. ₆	389,222.6	418,401.4	3,694.0	2,923,212. ₀	392,916.6
합계	32,566,173. ₁	6,910,062.2	730,317.8	438,353.1	33,296,490. ₉	7,348,415.4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dytu.customs.gov.ru/folder/230467>(2021.1.15. 검색)